

경찰과 함께 동네복지 완성도 높인다

전주시, 덕진·완산경찰서와 협약 체결...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 구축 위해 상호 협력기로

전주시와 완산·덕진경찰서가 주민이 이웃을 돌보는 동네복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취약계층 등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는 지난 16일 시청 회의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황수 완산경찰서장, 박성구 덕진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동네복지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 참여기관들은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 담당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과 지원, 관리가 원활해져 주민 스스로 이웃을 돌보는 전주형 동네복지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완산·덕진경찰서 관할 파출소(지구대)는 사회복지사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상담을 위해 교도소 출소자와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 세대 등을 방문 시 동행하고,



전주시는 지난 16일 시청 회의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황수 완산경찰서장, 박성구 덕진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동네복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 주민센터에 위기상황이 발생할 때 지원하는 등 안전을 책임지게 된다.

시는 경찰관 업무수행 중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등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제보하면, 찾아가는 복지상담과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연계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협약체결에 따라 앞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담당자

의 안전 확보는 물론, 경찰관이 함께 동행해 독거노인 방문 등 문안순찰과 합동순찰을 실시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치안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경찰서와의 업무 협약으로 보다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돼 보다 촘촘한 동네복

지를 완성하고,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다양한 협조가 신속히 이루어져 위기기후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타까운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익산시 승용차 사망사고 발생

지난 16일 오전 8시경 익산시 동산병원 사거리 인근에서 김모(55.여)씨가 몰던 차량이 전신주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남편 박모(62)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박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갑자기 차량이 전신주로 들이쳤다는 주변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심판매수 의혹' 전북현대 전 스카우터 사망

전주월드컵경기장 서문쪽 관중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

전북현대모터스의 심판 매수 사건에 연루됐던 전 스카우터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16일 오전 7시 54분께 전주월드컵경기장 서문쪽 관

중석에서 A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고 전했다.

A씨의 발견 당시에는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소속 구단에 유리한 판정을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주심에게 수백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대가가 없었던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절도범 검거 경찰관 표창 수여

전주완산경찰서(서장 강황수)는 효자지구대를 방문해 절도범 검거한 유공이 있는 나용오 경사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나용오 경사는 본인과 같은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몰래 훔쳐 후 주인 물래공구를 이용해 절취한 피의자를 CCTV 11대를 분석한 끝에 검거한 바 있다.

강황수 서장은 "주민들에게 공감받는 치안민족은 강철도 예방이라며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민근 기자

소형 레저보트 사고 잇따라... 인명피해 주의

군산해경, 보름 사이에 7건

소형 레저보트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해경의 구조율 100%를 보이고 있지만 언제든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최근 보름 사이 발생한 레저보트 사고는 모두 7건으로 빠른 속도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10시 군산시 아비도 남쪽 20m 해상에서 3명이 타고 있던 0.3급 레저보트가 연료가 떨어져 표류하다

구조되는가 하면 13일에도 방축도 인근 해상에서 엔진이 꺼져 표류하던 레저보트가 해경에 예인(曳引)됐다.

서해와 같이 최근에 발생한 사고는 정비 소홀과 안전 불감증에서 사고가 비롯된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군산해경 백태종 해양안전과장은 "소형선박이 대부분인 레저보트는 파도에 취약하고 구명조끼 이외에 구조 장비가 없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며 "특히, 출항지로부터 18km(10해리) 이내에서 운항할 경우

출항신고 의무도 없어 사고 발생 시 승선원 확인과 구조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해경은 최근 사고 발생 해역인 군산시 방축도, 말도, 황경도 등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충분한 연료 확보 및 시동용 배터리 점검 ▲휴대전화는 방수팩에 보관 ▲가족과 지인에게 활동해역, 입항 예정시간, 동승자 고지 후 출항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올 해 군산해경 관내에서 발생한 레저보트 사고는 모두 18건으로 일일 평균 30여척(100여명)이 레저 활동을 즐기고 있다.

출항신고 의무도 없어 사고 발생 시 승선원 확인과 구조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출항신고 의무도 없어 사고 발생 시 승선원 확인과 구조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군산=장현기 기자

"부정부패 없는 청정국가를 위해"



군산해경 '청렴콘서트' 성료

시선은 다음 공연인 '고 이사의 하루'로 연결되어 국민의 눈높이와 공무원의 부패 인식도에 대해 코믹하지만 기억으로 남게되는 작품들이 이어졌다.

"올다 웃으며 시간가는 줄 모르겠더라구요" 청렴 콘서트에 참여한 군산시청 K도 주무관의 말이다.

지난 16일 군산해경에서 열린 청렴연수원의 '청렴콘서트'는 그야말로 감동과 환희의 축제현장 같았다.

전, 현직 공무원이 직접 무대에 올라 상황극과 대중가요를 부르며 호응을 이끌어내고 청렴이란 무거운 주제를 문화예술과 접목시켜 큰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자리였다.

공연의 시작은 청렴수기 공모전에서 대상 수상한 '할머니의 500원'이란 작품을 샌드아트(Sand art)로 표현하면서 시작했다. 모아진

군산해경뿐만 아니라 부안해경, 군산시청 공무원 약 250여명이 가득매운 이날 콘서트에서 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장 고영창 서기관은 "교육의 진정성 전달을 위해 공직자가 직접 콘서트에 참여한 후 더 많은 공감을 이끌어 낸 것을 확인했다"며 "청렴하고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전국 어느 곳이든 찾아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군산=장현기 기자

'뇌물수수 의혹' 익산시 공무원 구속영장 반려

골재채취업자와 유착관계 의혹을 받던 익산시 공무원의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골재채취업자로부터 1,000만원을 챙긴 혐의(뇌물 수수)를 받는 익산시 소속 A국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경찰의 제출자료가 A국장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국장은 B(50)씨의 골재채취업체에 내려진 채석중지명령을 풀어주고 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밖에 B씨와 함께 농협회사법인을 설립해 정부 용자금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소명 자료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영장을 반려했다"며 "곧 증거를 보충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안심음식점 운영실태 일제 점검

30일까지... 남은 음식 재사용 근절 위해

전주시는 오는 30일까지 남은 음식 재사용 근절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음식물 감량 등 음식문화 개선을 실천하는 안심음식점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안심음식점은 전주시가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시범운영한 사업으로, 현재 3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음식점에서는 음식점 주방에 CCTV가 설치돼 손님들이 주방의 조리과정과 남은 음식 처리과정을 모니터를 통해 직접 볼 수 있어 식품위생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고 있다.

또, 고객에는 셀프 서비스용 반찬냉장고가 설치돼 모자리는 반찬은 손님이 직접 덜어먹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음식

문화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시는 이번에서 안심음식점의 △주방 공개 CCTV 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 △고객의 Self-service용 반찬냉장고 사용 등 음식문화 개선 실천 여부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 등 안심음식점 지정취소 기준 해당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고객에서 주방을 볼 수 있는 개방형 주방 문화 개선을 위하여 안심음식점을 확대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며 "남은 음식 재사용 근절, 위생교육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위생문화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전주, 한눈에 반하다

국립승리사 박물관 유네스코 음식향의도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